

#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奉佛과 講說공간의 변화과정

홍 병 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주제어 : 사찰건축, 양불전, 금당, 강당, 법당, 불전, 청규, 선종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존하는 전통사찰을 보면 혼치않게 배치상 위계의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두 개의 불전이 배치된 사찰을 발견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사찰의 배치는 앞뒤로 배치되거나 좌우로 병렬하고 있거나 안마당을 공유하며 직교하고 있거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거나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동안은 이러한 배치를 종파적 차이의 건축적 표현, 또는 지형에 적응하는 건축적 현상이 종교의 수용자인 신도들의 다양한 신앙적 요구와 작용하여 복수의 불전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러한 해석들의 유효함을 부정할 수는 없

지만 왜 위계의 차이가 없는 두 개의 불전이 동시에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은 아니었다.<sup>2)</sup> 이렇게 불충분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불전의 형성 원인이 단순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장기간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양불전 배치의 형성과정을 밝혀보기 위해 사찰의 근본적인 기능인 奉佛과 講說의 기능을 하는 건물의 변화를 바탕으로 불교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서 양불전 형성의 맥아와 전통을 거시적 변화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양불전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전불교이래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사찰건축계획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고대가람부터 양불전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조선 초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배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발굴조사

\* 교신저자, 이메일: dopyunsoo@hanmia.net

1) 고려시대에는 佛殿과 法堂이라는 용어가 좀 더 엄밀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대략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두 용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佛像을 모시고 儀禮와 奉佛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법당보다는 불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법당이라는 용어는 조선후기가 되면 인법당이라고 하는 대형요사도 법당으로 통칭하기 때문이다.

2) 양상현, 「불국토 사상에 따른 다불전 사찰의 조영개념 연구」, 건축역사연구 42호, 41~55쪽, 2005. 6

보고서의 배치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문헌 자료도 당시 배치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현전하는 사찰 중에도 형성과정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현재의 배치상태를 그대로 참고하였다.

다만, 양불전의 범위는 조선시대 사찰에서 발견되는 주불전과 부불전의 관계처럼 신앙 및 배치상 위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관계가 아니라 위계를 가늠하기 힘든 배치와 대등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중에 앞뒤 배치의 경우 배치상 위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배치 변화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당시 불교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 국내외 관련 문헌과 관련분야의 연구성과를 참고 하였다.

## 2. 불불과 강설의 건축

### 2-1. 금당과 강당

삼국시대 사찰에서 확인되는 주요전각으로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금당과 강당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금당과 강당의 건축형식은 대체로 장방형이지만 정방형에 가까운 금당과 금당보다는 장방형인 강당이 각각 전후로 배치된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건물의 규모는 사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삼국시대는 국가가 사찰을 창건하기 때문에 평면의 규모가 대체로 대형이다. 금당은 사역의 중심에서 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강당은 이에 비해서 주로 회랑과 연결되어 중심사역을 두르는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이러한 금당과 강당의 전후배치는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에 창건된 사찰에까지 지속되는 조영전통으로 회랑과 함께 중심사역의 정형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건축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처럼 신앙의 대상인 佛을 봉안하는 것과 법인 經을 講하여 傳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불교의 전통이다.

두 건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자면 우선 금당은 불상을 봉안하고 繞匝을 하기 알맞도록 건물의 중심에 불단을 형성하고 건물의 평면을 정방형에 가깝게 하고 있으며,<sup>5)</sup> 강당은 講師와 讀師가 마주보고 문답을 하면서 많은 청중들이 이들 주변에 모여 교리를 전수하는 식의 논장을 통해 강사와 독사를 잇는 축이 강조되고 이 영향을 받아 장방형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 2-2. 불전과 범당

고대가람일 수록 사찰은 기본적으로 奉佛과 講說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별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고대에는 금당과 강당이지만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는 佛殿과 法堂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4) 홍병화·김진덕, 「고려시대 사찰중심영역의 건축고고학적 고찰」, 건축역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65~175쪽

5) 이장근, 「한국과 중국의 고대 불교건축 비교연구」, 미술사학연구 230호, 2001

6) 이나영, 『한국고대불교사원의 강당건축에 관한 연구』, 경주대 문화제학과 석사논문, 2000

7) 고려시대 당우의 명칭을 조사한 이병희의 논문을 보면 講堂이라고 기록한 사례보다 法堂, 善法堂, 說法殿(堂)으로 기록된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종사찰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었다기 보다는 강

3) 講堂이란 용어는 이미 오래된 용어로 중국의 경우 『魏書』(554)의 「釋老志第十二」에 등장한다. 또한 『洛陽伽藍記』(547)에는 531년 세워진 建中寺, 瑤光寺, 景林寺를 설명하면서 각각 講室, 講殿 등으로 적고 있다.

또한 金堂이란 용어는 불상을 금으로 조성하는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불교전래가 '金人降庭說'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봐서 중국에서도 金堂이라는 용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우리의 『三國遺事』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불전이라는 용어는 『낙양가람기』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계기는 淸規의 찬술과 성행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청규란 선종총립 생활규범으로 선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규의 내용에 보면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세우는 것은 불조로부터 친히 부촉 받은 일로서 당대에 존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8)</sup>는 청규의 핵심적인 요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師資相承의 전통이 살피지는 것으로 사찰의 주지가 곧 부처이므로 주지가 설법하는 장소인 법당이 불상이 봉안된 불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법당은 강설의 장소로 곧 과거의 강당과 비견되는 공간이며, 불전은 불불의 장소로 과거의 금당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규가 당시 선종사찰의 규범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전과 법당이라는 용어는 선종사찰을 넘어 당시 모든 사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특히 송대에는 국가불교화의 정책에 의해 오산십찰제를 통해 불교를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 사찰이 규격화·정형화되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각이름이 불전과 법당인 것이다.

### 3. 강설공간의 불상봉안 문제

#### 3-1. 유구의 고찰

금당은 당연히 불상을 봉안하고 불불의례를

당을 법당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이병희, 「고려시기 가람구성과 불교신앙」, 문화사학 제11·12·13호, 1999, [표2, 4]참조

8) 『釋氏要覽』 禪住持 ‘凡具道眼有可尊之德者 命爲長老 旣爲化主 卽處于方丈 同淨名之室 非私寢也 院不立佛殿 惟樹法堂 表佛祖所囑受當代爲尊也’

행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강당은 법을 講論하며 전하는 공간이었지만 불상을 봉안하고 있었는데 강당의 불상봉안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대가람을 발굴조사한 보고서를 가지고는 강당에 불상을 봉안한 사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유구의 훼손이 심해서 이랬지만 몇몇 대형사찰에서는 중앙부에 불상을 봉안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찰들은 황룡사, 미륵사, 불국사, 성주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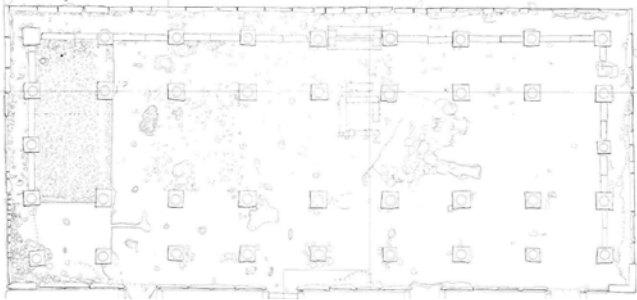
정림사의 경우 강당에 11세기로 편년되는 비로자나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가람의 변화로 인해 강당의 자리에 금당이 들어섰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sup>9)</sup> 그러나 강당에 불상을 봉안했던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불상의 봉안만으로 강당이 금당(불당)으로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8세기 이전 사찰의 강당은 칸수가 짝수인 경우도 많아 불상이 봉안된다고 해도 정중앙에 봉안될 수가 없다. 강당이 짝수 이라는 것은 건물의 중앙칸이 없는 것으로 탑과 금당으로 이어지는 배치축과 일치하는 건물의 중심성 보다는 <2-2장>에서 논한 것과 같이 사찰의 배치축과 직교하는 강단과 논단의 축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강당에 비해 고려시대 강설공간인 법당에는 불상이 봉안되었다고 볼 만한 확실한 유구를 찾을 수가 없다. 우선 실증적으로 선종사찰의

9) 윤무병, 『부여 정림사지 발굴기』, 백제연구총서 제2권, 1992, 387~3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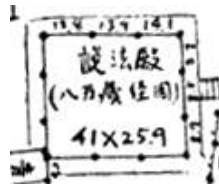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초 재건강당의 규모와 창건강당의 규모를 비슷하게 보고 있으며, 출토 와당의 명문을 통해 11세기 초로 강당제건시기를 잡고 있다. 이에 양식상 고려 초의 양식을 보이는 불상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당에 불상이 봉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강당에서 佛堂(이 논문의 표현대로)으로 전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림1> 불국사 무설전지 발굴평면도



<그림2> 회암사 설법전 발굴평면도



<그림3> 일제강점기의 송광사 설법전



<그림4> 13세기 상당도

법당임이 확실한 사찰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도 건물의 규모가 이전의 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불상이 봉안되었다 하더라도 소형불 또는 가벼운 재질의 불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불단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회암사와 송광사처럼 여러 가지 정황상 선종사찰임이 확실한 두 사찰의 설법전을 보면 건물내부에 불단이 마련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암사의 경우 5칸의 설법전 중앙에 ‘ㄴ字形’석벽이 보이지만 적심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송광사 설법전의 경우 스키야마가 작성한 배치도에 보면 3칸의 중앙에 불단으로 보이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두 사찰 모두 가벼운 불상을 봉안했거나 도면표기상 생략되었다고 파악할 수도 있어 장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 자료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 3-2. 문헌의 검토

문헌을 통해서도 법상종 사찰에서 금당에 미륵보살, 강당에 아미타불이 봉안된 사례를 甘山寺, 南白月寺, 興輪寺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일본의 경우 대부분 많은 불상을 강당에 봉안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해진 존상이 없이 약사삼존, 미륵보살, 사천왕상 등이 봉안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sup>11)</sup>

이는 설법을 통한 전법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 강당도 강설에 포함된 의례에서 불상이 빠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음이 『입당구법순례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10) 문명대, 「신라 법상종의 성립 문제와 감산사 미륵·아미타불상」, 『원금과 고전미』, 예경, 71~110쪽, 2003

11) 이나영, 앞의 논문, 2000, 33~34쪽

있다.<sup>12)</sup>

특히 1019년 송의 도성이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불교의 주된 용어와 개념을 쉽게 설명한 책인 『釋氏要覽』을 보면 『大法炬陀羅尼經』의 설명을 빌어 ‘강당에 불상을 봉안하는 이유가 법사의 설법시 나찰녀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sup>13)</sup> 이는 아무리 논장을 통해 법을 전하는 강당이라고 해도 신앙의 공간이라 信心의 자극을 위해 불상을 봉안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강당의 불상배치는 교종사찰에서 이어지는 전통으로 본다면 선종사찰의 법당에서는 불상을 봉안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화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불화로 13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上堂圖’가 바로 그것이다.<sup>14)</sup> 상당이란 주지가 법당에 나아가 법을 강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선종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고 있는 의식이다.

이는 송의 선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그림에는 주지가 앉은 高座만 표현되어 있지 어디에도 불단과 불상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선종사찰에서 당연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지를 곧 부처로 보는 인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선종사찰에서 법당에는 교종사찰에서의 강당과는 다르게 불상이 봉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12) 『입당구법순례행기』는 9세기 일본 교토 연력사(延曆寺, 엔랴쿠지)의 승려 엔닌의 일기로, 일본 큐슈(九州) 하카타를 출발하여 9년간(838~847)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위키백과> 참조

13) 講堂置佛像 大法炬陀羅尼經云 ‘法師說法時 有羅刹女名愛欲 常來惑法師 令心散亂 是故說法處 常須置如來像 香華供養 勿令斷絕 彼羅刹女 見已即自迷亂 不能爲障’

14) 絹本着色, 縱115.3, 橫53.5. 中國 南宋~元(13세기)

다만 뒤의 <6-2장>에서 거론하는 祝釐의 내용이 점차 변화해서 불단을 법당내에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법당내 불단의 설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청규와 건축

### 4-1. 청규의 성립과 전개

최초의 청규는 百丈懷海(720~814)의 청규이지만 이 청규는 현재 散失되어 전문이 전하지 않고 그 내용이 다른 청규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전할 뿐이다.<sup>16)</sup>

청규란 선원생활의 규범, 의례, 규칙 등을 담은 것으로 사찰내에서의 공동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주요 건축공간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17)</sup>

중국의 경우 선원이 처음부터 독립적이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초기에는 율원에서 수행과 생활을 같이 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선종은 자신의 생활과 수행의 지침을 청규라는 틀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율원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선종사찰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선종사찰의 경우로 우리도 어느 정도 비슷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을 통해 전달된 다른 문화를 수용하던 것처럼 우리 나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5) 주 8. 참조

16) 『宋高僧傳』10권 「唐新吳百丈山懷海傳」과 『景德傳燈錄』6권 「禪門規式」을 비롯하여 『大宋僧史略』상권 「別立禪居條」 등에 일부가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허훈, 「청규에서의 생활문화연구 - 의식주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1쪽, 2007

서아리·홍대형, 「송대 천동사의 전각과 이용」, 건축역사연구 제42호, 2005

17) 서아리, 「송대 선찰의 건축공간-선원청규와 오산심찰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2003

는 우리와는 다르게 선종의 도입을 통한 사찰의 건립이 중국의 예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9세기 입당구법승의 활발한 구법활동과 이들의 입국을 통한 선종의 유입은 적어도 9세기 후반부터는 매우 직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봐서 청규의 도입과 정착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대단히 능동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1] 중국찬술 청규문헌 목록

清規名	간행시기	간행자
禪苑清規	1103	慈覺宗曠
入衆日用清規	1209	無量宗壽
叢林校定清規總要	1274	惟勉和尚
禪林備用清規	1311	澤山一咸
幻住庵清規	1317	中峰明本
勅修百丈清規	1336	東陽德輝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청규가 수용되고 정착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에서도 백장의 청규이후에 찬술된 청규를 보면 12세기에 들어 찬술되기 시작하여 14세기 전반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12세기에 들어 청규를 정리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선종 사원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古清規라 불리는 백장청규가 만들어진 후, 12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청규문헌이 찬술되었다고 하지만 고청규의 내용은 『景德傳燈錄(1002)』과 『大宋僧史略(999)』, 『宋高僧傳(998)』 등의 기록들에 분산되어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청규찬술의 공백기간에

도 청규의 필요성은 계속 유의미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유지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척수백장청규』를 보면 당시 청규의 재정비 필요성이 얼마나 컸으며 재정비로 인한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勅修’란 황제의 명에 의해 찬술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덕휘의 발문에 보면 “백장청규의 初本을 구하지 못해 禪苑·校定·備用の 세 가지 청규서를 교합·편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8)</sup>

이처럼 중국에서도 청규의 필요성은 선종사찰에서 절대적이었으며, 또한 계속 구체적인 내용을 첨삭할 만큼 변화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청규가 들어온 것은 본격적인 입당구법승의 귀국시기인 9세기 후반이거나 적어도 고려 초인 고려전기인 것으로 생각되지만<sup>19)</sup> 청규의 실제적 수입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11년에 간행된 『重添本禪苑清規』을 1254년에 고려 分司大藏都監에서 重雕覆刻하면서 이다.<sup>20)</sup>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규는 이미 고려 초에는 우리나라의 선종사찰에서는 폭넓게 보급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2. 청규의 공간적 수용

청규가 선종사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청규를 통한 선종의 정체성의 강화의 과정을 보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대

18) 허훈, 「청규에서의 생활문화연구 - 의식주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6~24쪽, 2007

19) 인각사에서 출토된 병향로, 다와, 금고 등의 일괄 유물은 중국의 신회선사(神會, 683~758)의 묘탑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 졌다. 인각사 출토유물의 매납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적어도 고려 초를 하한으로 보고 있어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선종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 서은미, 「禪苑清規를 통해 본 송대 선종사원의 운영과 茶禮」, 동양사학연구 제108집, 48~51쪽, 2009

나 권력과 불교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종과 권력과의 관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청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전을 없애고 법당만 남기라는 내용이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구절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조차 ‘금당과 강당’에서 ‘불전과 법당’으로 이어지는 조영전통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선종사원이라고 해도 奉佛을 무시할 수 없었던 종교적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청규를 제정하고 선종사찰을 독립하고자 했던 百丈海會(720~814)가 청규를 제정할 당시에는 불전으로 인한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당시 사회는 불교가 唐皇室과 밀착되어 그 일족의 禍福을 빌어주는 의례를 불전에서 행하면서 참선수행보다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원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넓혀가는 어용불교로 전락하고 있었는데 백장은 이 실태를 개탄하고 있었다.<sup>22)</sup>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수행중심의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실을 위한 의례가 행해지는 불전보다는 수행의 중심인 법당을 중요시했던 것이다.<sup>23)</sup>

불교와 국가권력이 밀착된 당시의 현실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세기 말 선종 유입과 성행도 역시 대상만 왕실이나 귀족이냐의 문제일 뿐 불교와 권력과의 관계로 보자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 『景德傳燈錄』6권, 「禪門規式」, ‘不立佛殿唯樹法堂者’

22) 허훈, 「청규에서의 생활문화연구 - 의식주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12~16쪽, 2007

23) 近藤良一, 『唐代禪宗における佛殿の問題』, 『印度哲學と佛敎』, 평락사, 669~670쪽, 1989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선종에 대해 우호적인 지방귀족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건국된 고려는 전기까지 오히려 법상종과 화엄종 중심의 교학적성향이 강한 사찰들이 불교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변을 통한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문신과의 관계가 깊은 교종보다는 탈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선종을 무신정권이 선호하게 되고 이를 위해 선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행해진다.

이와 같은 불교와 권력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고려 사찰건축의 불전과 법당 배치를 살펴보면 중요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자면 선종의 독립이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행중심의 사원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지만 선종사찰 역시 권력과 유착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등의 악순환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청규를 통한 선종사찰의 독립을 울원으로부터의 형식적 독립만으로 보기보다는 唐皇室로부터의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본연의 자주적 독립으로 본다면 송대와 원대를 거치면서 생긴 주지설법의 공간이 축소되는 경향은 주지의 설법을 통한 수행의 강화라는 선종사찰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초기 청규제정의 의지와는 반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4세기에 이르면 「대도천

24) 송대의 경우 선원의 농업경영에서 당시 사찰의 이윤추구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맡은 소임은 장원을 관리하는 莊主, 菜園의 재배와 경작을 맡은 園頭 등의 소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원의 관리의 행자만이 아니라, 소작인, 고용인부 등이 동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보사회암사수조기」에 園頭寮라는 건물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당시 회암사에도 園頭라는 소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찰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은미, 「『禪苑清規』를 통해 본 송대 선종사원의 운영과 사례」, 동양사학연구 제108집, 52~63쪽, 2009

태법왕사기』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나타나는 전각의 이름이 이미 청규에 나타나는 전각의 이름과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하지만 회암사에서 보이는 이러한 건축적 요소는 이미 宋代의 선종사원에서 보였던 전형적인 청규의 건축인 ‘五山十刹圖’에 보이는 사찰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배치라고 알려져 있다.<sup>26)</sup> 한지만의 연구에서는 송대에서元代를 거치면서 寢堂의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침당이 사라졌고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건축이 회암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sup>27)</sup>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은 선종사

25) 『고청규』에서는 住持 아래 十務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십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禪苑清規』에서는 주지를 보좌하고 대중을 통솔하는 직위로 四知事와 六頭首를 두고 있어 십무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는 요사의 명칭 중에 悅衆寮, 典座寮, 首座寮, 書記寮, 知藏寮, 副寺寮, 知客寮와 편의시설로 浴室 등이 등장한다. 이 평칭은 각각 사지사 중에 하나인 열중(維那), 진좌를 그리고 옥두수 중에는 수좌, 書狀(書記), 藏主(知藏), 지객, 庫頭(副寺)를 의미하고 옥주는 없지만 옥실이 등장하고 있어 십무의 구성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대도천태법왕사기」의 경우 ‘位賓’, ‘丈室’, ‘侍者’ 등의 건물 명이 나오고 있어 회암사의 사례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 기록의 전각명은 회암사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전, 법당, 방장, 僧居(寮) 등의 건물용도가 일치하고 있어 모두 당시 청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적멸, 『『禪苑清規』의 內容構成에 관한 考察』, 『한국선학 제8호』, 내용참조, 195~238쪽, 2004

26) 이 그림은 송이 선종을 국가종교화 하면서 오산십찰제를 정하는데 이것이 당시 사찰의 典範의 역할을 한다. 이 당시 일본의 徹通義介가 송의 선찰들을 시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영평사를 창건하기 위한 자료로 천동사, 만년사, 영은사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천동사의 소실시기나 철통의 개의 入宋시기 등을 고려해서 13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다.

27) 한지만 · 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61호』, 2008. 이 논문에서는 침당이 사라지면서 침당의 기능이 각각 법당과 방장으로 흡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勅修百丈清規左鱗』에서 불전에 대한 언급 없이 ‘法堂-茶堂-寢堂-方丈’의 순으로 주지의 공간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전을 중요시 하지 않는 청규의 원칙을 지키는 내용이 강조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제하는 사찰과는 차이가 있다.

찰에서 주지의 설법과 관련된 침당의 역할을 감안하여 본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주지설법 공간의 축소경향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 고려사찰의 강설공간의 변화

고려시대도 역시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불전과 법당의 전후배치의 전통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하대의 선종유입이 전체 불교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얼마만큼 지속적이었는지는 별도로 논의를 거쳐야 할 만큼 무거운 주제이지만 기존의 교학적 성격이 우세한 신라하대에서 고려전기까지의 불교계는 9세기 들어 유입되기 시작한 선종을 때로는 새로운 경쟁자로, 때로는 대안세력으로까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선종유입이후 고려에 미쳤을 청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설공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청규로 인한 건축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창건당시부터 확연하게 배치계획이 드러나는 선종사찰을 확실하게 꼽을 수 없는 현실에서 초기 선종사찰의 건축적 특징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선·교종을 막론하고 배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는 조영전통이 유효한 사찰에서 강설공간의 규모 변화는 [표2]와 같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2] 고대에서 고려까지 금당대비 강설공간의 규모

사찰	조영시기	강설공간	금당
정림사	6C 前	7	5
미륵사	7C 前	13	5

28) 김두진, 「신라하대 선사들의 중앙왕실 및 지방호족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20호, 1997



황룡사	754년	10	9
사천왕사	679년	7	5
감은사	682년	8	5
고선사	686년	5	?
천군리사지	8C 前	8	5
불국사	751년	8	5
홍덕사 <sup>29)</sup>	9C 中	4	5
천덕사 <sup>30)</sup>	9C 中	5	5
성주사	9C 末	7	5
승선사 <sup>31)</sup>	951년	3	3
불일사	954년	7	5
봉업사 <sup>32)</sup>	10C 中	5	5
만덕사 <sup>33)</sup>	여말선초	3	5
홍왕사	1067년	11	?
만복사 <sup>34)</sup>	11C 中	7	5
혜음사 <sup>35)</sup>	1122년	3	3
선원사	1254년	3	5
운주사	13C 中	3	-
회암사	1376년	5	5

29) 청주대학교 박물관, 『청주홍덕사지』, 41~43쪽, 1986

발굴보고서에 실린 배치도를 보면 금당은 5×3칸으로, 강당은 4칸으로 추정하고 있다.

30) 안춘배,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및 합천 계산리 발굴조사개보」, 영남고고학 제3호. 132~133쪽, 1987

31) 승선사의 경우 신명순성황후의 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배치에 있어서도 12세기 후반 대대적인 증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때 강당규모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이 배치축이 남북축에서 동서축이 추가되는 변화에 한해 언급하고 있다.

충청대학박물관·충주시, 『충주 승선사지』, 650~653쪽, 2006

32) 이진현, 「안성 봉업사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대 석사논문, 51~68쪽, 2004

이 논문에서는 초창을 700년경으로 보고 이 당시의 배치에서는 강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고려 광종당시 증창당시 석탑, 금당, 강당의 전형적인 배치를 추정하고 있다.

33) 만덕사의 금당지는 기단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규모는 24.9m×20.4m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당의 초석거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4m내외의 주간으로 보고 5칸을 추정하였다.

이 표를 보면 강설공간이 봉불공간인 금당이나 불전보다 작은 경우는 홍덕사, 만덕사, 선원사이고 천덕사, 승선사, 혜음사, 회암사는 규모가 같다. 물론 측면의 칸수와 주간거리가 무시되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강설공간인 강당 또는 법당이 금당 또는 불전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강설공간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는 강설공간과 봉불공간의 규모가 비슷해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고대가람일수록 고려시대 가람보다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창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로 내려갈 수록 강설공간 규모가 작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강설자체의 쇠퇴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단언하기는 힘들다.

특히 이중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당의 규모만이 아니라 바로 법당의 위치이다. 고려시

북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Ⅲ』, 107~110쪽, 2007 및 첨부된 <그림3>을 참고로 추정하였음

34) 윤덕향, 「만복사지 가람배치에 대하여」, 불교미술 제10호, 230쪽, 199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금당의 하부에 초창의 금당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 유구는 장변이 19.7m이고 단변이 12.9m이다. 그리고 추정 초석간의 거리 약 3.5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유구가 기단열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단으로 감안하면 초석 중심간의 거리는 17.7m정도이다. 그렇다면 초창의 금당 유구로 생각되는 서금당지 하층유구는 목탑과 마주하는 정면칸수가 약 5칸임(17.7÷3.5=5)을 추정할 수 있다.

35) 단국대학교,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혜음사의 경우 병렬하는 두 개의 배치축이 있는데 중심건물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나란히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찰도 당연히 '講說'과 '奉佛'를 주요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란한 두 개의 배치축의 중심건물 중 하나는 법당, 다른 하나는 불전임이 분명하다. 이 두 건물의 규모는 모두 3칸 정도로 보인다.

대까지도 강설과 봉불의 배치전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례 화엄사를 제외하고 고려 중기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는 12세기경부터는 실제 사찰에서 이러한 조영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음사의 배치로 여기서는 전후배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거의 대등한 건물의 병렬배치를 보이고 있다.<sup>36)</sup> 이러한 배치의 특징은 현존하는 사찰인 봉정사에서도 발견된다. 봉정사는 고려중기로 알려진 극락전과 극락전 앞의 탑을 잇는 배치축하고 조선 초로 알려진 대웅전의 배치축이 병렬하고 있는 사찰로 현재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불전과 법당의 전후배치는 불가능한 지형이다.

그리고 12세기에 형성된 가람으로 조사된 운주사의 경우도 역시 주요건물의 전후배치는 발견할 수 없었다.<sup>37)</sup> 이외에도 현존하는 사찰에서 안마당에 면한 주불전의 뒤에 별도의 법당이 들어설 만한 지형이 아닌 사찰의 사례들은 비교적 많다.

이러한 경우는 봉정사, 진동사, 용문사(예천)의 경우처럼 병렬하는 두 개의 불전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거나 화엄사, 금산사, 백양사, 범어사 같이 안마당에 공유하며 직교하는 두 개의 배치축을 갖는 사찰 그리고 장곡사, 대흥사와 같이 각각의 영역으로 불전이 구분된 사찰들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봉불공간과 강설공간의 전후배치전통은 고려 중기를 거치면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건축의 배치가 가지는 규정성보다는 지형과 규모

등에 의해 배치가 결정되는 경향이 기존 배치전통을 압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6. 兩佛殿의 시작

### 6-1. 봉불과 강설공간의 통합

선종과 교종의 건축적 특징의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종파와 건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

만약 어떤 사찰에 종파적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찰을 완전히 개변하기보다는 그 종파가 선호하는 주불의 교체를 통한 전각명의 변화나 종파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영역의 추가 정도가 건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강설공간의 축소라는 고려시대 일반적인 변화의 경향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 번 더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 초에 창건되거나 중건된 원찰에서는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봉불공간과 강설공간의 구별조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당시 조선이 불교에 대해 억압적 정책을 펴고 있었고, 능침사찰에 한하여 제한적인 중건·중수·창건을 허용하고 있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당시 정치적 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고려 중기이후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불전과 법당의 변화 경향과 전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3]은 조선 초 왕실에 의해 창건과 중건이 주도된 사찰들로 능침사찰이거나 왕의 수복을 비는 원찰의 주불전을 정리한 것이다.<sup>38)</sup> 이중에 정인사, 미지산 상원사, 원각사에서는 주요 전각이 앞뒤로 배치된 사례를 볼 수 있지만

36) 『과주 해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에는 현재 발굴지역을 행궁지역으로 보고 있고 주변 어딘가에 있는 중심사역을 추가로 발굴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37) 전남대학교박물관·화순군, 『운주사Ⅳ』, 149~167쪽, 1994

38) 홍병화, 「조선후반기 사찰의 중심영역의 배치변화-배치 및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09

[표3] 15세기 사찰의 주불전

사찰	전각명	시기	규모
묘적사	-	1454~5	-
	前:佛殿(觀音殿?)		?
정인사	後:羅漢殿(應眞殿)	1459	3
	前:正殿(梵雄殿)		3
미지산 상원사	後:曇華殿	1462	3
	殿:佛殿(미상)		3
오대산 상원사	-	1466	-
	前:佛殿		?
봉선사	-	1469	-
	前:正殿(大雄寶殿)		3
원각사	後:海藏殿	1471	?
	前:正殿(大光明殿)		?

이것이 정확히 以前시대와 같은 불전과 법당의 조영전통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표3]에 나타나는 사찰 중에 원각사를 제외한 사찰들이 上室이 주불전의 좌우에 배치되어 회암사의 정청과 좌우방장과 같은 배치특징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39)</sup>

그리고 이 사찰들은 또한 모두 선당과 승당이 있는 것으로 봐서 선찰의 주요 수행당우를 중심사역에 갖추고 있어 선교양종 통합의 건축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거나 혹은 선종사찰의 구성요소들을 압축한 조선시대 일반적 사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宋代 선종사찰이나 회암사에 볼 수 있는 불

전 뒤 공간의 법당, 정청, 방장의 공간이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강설공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던 그간의 전통 즉, 선종사찰에서 발견되는 주지설법의 공간을 포함한 사승을 위한 공간을 불전 뒤에 배치하는 전통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조선의 역불에 의한 왜곡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사찰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불불과 강설보다는 왕실 원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찰공간의 변화를 강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이외에도 운주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처럼 중소형사찰에서는 불불공간과 강설공간의 통합 경향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갖추기보다는 통합적 공간을 구성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의 창건 또는 중건의 시기가 모두 고려중기 이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통합의 경향 하에서 새로운 왕조의 역불<sup>40)</sup>과 원찰이라는 강요된 기능<sup>41)</sup>으로 불불과 강설의 공간은 급속히 통합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바뀐 조선 초기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찰은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자기 스스로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불불과 강설공간의 통합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6-2. 강설공간의 불전화

강설공간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

39) 이경미, 「기문으로 본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건축역사연구 제66호, 2009, 이 논문에서 그려진 추정배치도는 원각사, 봉선사, 정인사, 상원사 모두 주불전과 上室의 배치를 모두 ‘□□□’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지만의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法堂과 方丈(上室)의 배치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각사도 상실이 주불전의 좌우에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전과 같이 불불과 강설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었다고 볼만한 사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40) 실질적으로 세종대에 행해지는 강제적 종파의 통합과 사찰의 폐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자극하였을 것이다.

41) 왕실의 원찰로 지정받는다는 것은 왕실을 위한 의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임무가 강제되는 것으로 이에 적합한 공간을 갖추는 것도 강제되었을 것이다.

전이 되었는지 과정을 되짚어 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강당에는 불상을 봉안하는 古來의 전통이 있어 설명하기가 쉽지만 강설공간 중 선종사원의 법당에서는 불상봉안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 어떻게 법당의 불상봉안 여부를 논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청구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법당의 기능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법당에서 행해지는 上堂은 주지의 陞座說法을 말한다. 『백장청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禪門規式』에 의하면 상당은 朝晩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그러나 1103년에 간행된 『禪苑清規』에 이르러서는 상당이 5일마다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sup>43)</sup> 1274년에 간행된 『叢林校定清規總要』에서는 매월 5·10·20·25일의 상당을 五參이라 하고 이중에, 1·15일의 상당을 朔望상당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국가와 황실에 대한 축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1336년 간행된 『勅修百丈清規左觚』에 보면 상당이 점차 빈도가 줄어들어 결국은 15일 간격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44)</sup> 그리고 『칙수백장청규』에는 이전의 청구에서는 볼 수 없는 「祝釐」의 장을 두어 노골적으로 황실을 위한 의례를 선종사찰에서 행하게 하고 있다.

이 「축리」장에는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황제의 영정을 갖추고 불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예를 올리라고 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변화는 선종사찰의 탈권력적 초심과는 다르게 주지설법인 상당의 횡수가 줄고 결국에는 청구에서 불단까지 갖추는 축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지설법인 상당의 축소는 법당면적의 축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는 없고, 불단을 갖추는 의례가 강조되면서 법당의 불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당시 강설공간의 불전화 경향을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구체적인 사례를 현실에서 찾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미의 선종사찰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있다고 해도 변화의 경향이 청구의 변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전과 법당의 공간적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앙을 요구하던 당시의 수용자들에 맞게 양불전 배치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곡사, 봉정사, 용문사, 장곡사, 전등사, 보경사 등과 같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양불전이 남아 있는 사찰이 이러한 변화의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건물 모두가 전해져 양불전으로 정착한 사례보다는 둘중 하나의 건물만 남아 다시 그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배치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이었을

42) ‘其闔院大眾 朝參夕聚 長老上堂陞座 主事徒衆 雁立側聆.’

43) ‘五日陞堂激揚宗旨.’

44) 無著道忠(1653~1745)이 쓴 『勅修百丈清規』에 대한 해설서. ‘上古則朝參暮參 中古則五參上堂 近代但旦望上堂耳.’

45) 『報恩章第二』 ‘在京官寺 於是設聖容具佛壇場 月以五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祭 設奠展禮如生’

여기서 불단을 갖추는 장소가 법당인지 불전인지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삭망의 상단에 축원을 했다는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칙수백장청규』에 이르러서는 불단을 법당에 갖췄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6) 적멸, 「禪苑清規의 內容構成에 관한 考察」, 한국선학 제8호, 2004, 내용참조

적멸, 「禪苑清規의 住持說法에 관한 考察」, 한국선학 제9호, 2004, 내용참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이러한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결론

시대를 막론하고 사찰은 봉불과 강설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대 교학가람의 경우 봉불의 공간인 금당과 강설의 공간인 강당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요소는 전후배치의 전통을 통해 강한 사찰배치의 정형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고대가람일수록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어 대규모 사찰로 영건되는 특징이 있었지만 시대가 내려오면서는 사찰의 수가 많아져 국가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그간은 교종사찰이 중심이었다면 9세기 후반부터 이어지는 선종의 유입을 통한 선종사찰의 성장은 기존 사찰에 비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만큼 배치계획에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사찰의 변화는 일시적이며 뚜렷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복합적이며 비교적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강설공간의 변화는 고대가람일수록 금당에 비해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불전에 비해 규모가 같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강설의 공간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은 교학사찰에서는 교리의 전수일 것이고 선종사찰에서는 사자상승의 전통일 것이다.

고대 교학가람일수록 강당의 규모가 큰 것은 일단 사찰의 규모가 크다는 점과 동시에 교학의 전수가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사찰의

규모는 국가지원의 분산으로 고대가람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선종사찰의 경우 선종의 성격상 강설의 공간이 법당만이 아니라 방장, 침당 등으로 분할되어 법당의 규모가 교종사원의 강당에 비해 확연하게 작아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법당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강설공간은 불전의 규모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중기에 이르면 봉불과 강설의 공간이 전후배치의 정형성에서 점차 다양한 변화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봉정사, 혜음사 등의 병렬배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운주사와 같이 고려후기를 거치면서 점차 통합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경향은 조선 초에 왕실의 원찰들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사찰들에서는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면서 고유의 기능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해지는 봉불과 강설에 사용되던 독립된 전각들은 다양한 신앙을 요구하는 조선시대 신도들의 요구에 부응해 결과적으로는 통불교적 성격이 강화되어 양불전 사찰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찰의 고유기능인 봉불과 강설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던 주요건축의 변화를 통해 양불전 사찰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고려시대에 대한 관련분야 연구 및 선찰의 중요 자료인 청규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보충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lt;참고문헌&gt;

1. 홍병화·김진덕, 「고려시대 사찰중심영역의 건축고고학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2. 이강근, 「한국과 중국의 고대 불교건축 비교연구」, 미술사학연구 통권 230호, 2001
  3. 이병희, 「고려시기 가람구성과 불교신앙」, 문화사학 제11·12·13호, 1999
  4. 田中良昭, 『敦煌禪宗文獻の研究』, 대동출판사, 1983
  5. 윤무병, 「부여 정림사지 발굴기」, 백제연구총서 제2권, 1992
  6.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61호, 2008
  7. 문명대, 『신라 범상종의 성립 문제와 감산사 미륵·아미타불상』, 『원금과 고전미』, 예경, 2003
  8. 이나영, 『한국고대불교사원의 강당건축에 관한 연구』, 2000, 경주대 석사논문
  9. 허훈, 「청규에서의 생활문화연구 - 의식주를 중심으로」, 2007, 동국대 박사논문
  10. 서아리·홍대형, 「송대 천동사의 전각과 이용」, 건축역사연구 제42호, 2005
  11. 서아리, 「송대 선찰의 건축공간-선원청규와 오산십찰도를 중심으로」, 2003,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12. 서은미, 「禪苑淸規를 통해 본 송대 선종사원의 운영과 茶禮」, 동양사학연구 제108집, 2009
  13. 近藤良一, 『唐代禪宗における佛殿の問題』, 『印度哲學と佛教』, 평락사, 1989
  14. 김두진, 「신라하대 선사들의 중앙왕실 및 지방호족과의 관계」, 한국학논총 20, 1997
  15. 이진현, 『안성 봉업사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4, 성균관대 석사논문
  16. 홍병화, 『조선후반기 사찰의 중심영역의 배치변화-배치 및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2009, 연세대 박사논문
  17. 이경미, 「기문으로 본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건축역사연구 제66호, 2009
  18. 적멸, 「禪苑淸規의 內容構成에 관한 考察」, 한국선학 제8호, 2004
  19. 적멸, 「禪苑淸規의 住持說法에 관한 考察」, 한국선학 제9호, 2004
  20. 안춘배,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및 합천 계산리 발굴조사개보」, 영남고고학 제3호, 1987
  21. 충청대학박물관·충주시, 『충주 송선사지』, 2006
  22. 복천박물관, 『부산만덕사지Ⅲ』, 2007
  23. 윤덕향, 「만복사지 가람배치에 대하여」, 불교미술 제10호, p. 230, 1991
  24. 단국대학교,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25. 전남대학교박물관·화순군, 『운주사Ⅳ』, 1994
  26. 양상현, 「불국토 사상에 따른 다불전 사찰의 조영 개념 연구」, 『건축역사연구 42호』, 2005
- 접수(2010. 6. 15)  
수정(1차: 2010. 7. 27, 2차: 2010. 8. 3)  
게재확정(2010. 8. 5)
-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 The Transition Process of Ritual(Worship)(奉佛) and Lecture(講說) Space in a Korean Buddhist Temple

Hong, Byung-Hwa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 Abstract

The main functions of a Buddhist temples are as a place for Buddhist services and a place for sermons and each ancient Buddhist temple was equipped with a main and separate building. After Zen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there was a tendency to change the terms to Buddhist sanctuary and altar, as set forth in the Zen Buddhism code of conduct called 'Cheonggyu(清規)'.  
As such, it was thought that the division between Buddhist service space and preaching space were relatively firm until the Goryeo Dynasty. However in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Goryeo to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n increasing tendency of integration of the two buildings. It can be seen that, in cases where both buildings remained, statues of Buddha were enshrined in these buildings without any distinction. Eventually it is led to the tradition of duo-Buddhist sanctums.

---

Keywords : Buddhist temple, duo Buddhist sanctums, the main building of a temple, auditorium, Buddhist sanctuary, Buddhist altar, Cheonggyu, Zen Buddhism

---